

新羅 訥祗王代 朴堤上의 政治的 位相

조 이 옥
(영산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 II. 朴堤上의 官職과 身分
- III. 朴堤上의 活動과 位相의
變化
- IV. 맺음말

<논문 요약>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의하면 신라 눌지왕대 朴堤上(? -418)은 삼국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영웅적인 충성을 다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두 사서에 전하는 내용의 연대나 사건 전개 등 다소 차이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줄거리는 대동소이하다.

본 논문은 박제상에 대한 기왕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 눌지왕대 활약한 박제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았다. 즉 박제상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 敵良州干에서 개인적인 역량으로 중앙정치무대에 등장하는 과정과 삼국의 복잡한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외교가로서의 탁월한 면모에 대해 주목하였다.

신라 눌지왕대에 활약한 박제상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삼량주간이라는 그의 직책에서 보는 것처럼 박제상은 오늘날 양산 지방에 세력 근거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재지세력가였던 박제상은 왕제귀환이라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왕경인 경주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경위인 奈麻를 받는 등 중앙귀족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박제상이 왕제를 구출하고 왜에서 장렬히 죽음을 맞이한 것과 관련하여 눌지왕은 박제상의 죽음을 통치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라 눌지왕대 활약했던 박제상에 대한 몇가지 검토를 통하여 신라사에 있어 삼량지방이 차지하는 전략적인 위치와 함께 삼량지역의 지방세력가가 왕경의 진골신분으로까지 그 위상이 격상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신라가 중앙집권적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는 데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눌지왕, 박제상, 삼량, 진골

I. 머리말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의하면 신라 눌지왕대 朴堤上(? -418)은 삼국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영웅적인 충성을 다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두 사서에 전하는 내용의 연대나 사건 전개 등 다소 차이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줄거리는 대동소이하다. 즉 박제상은 신라 변경인 敵良州干으로 있다가 눌지왕이 추진했던 왕제귀환의 임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물로서, 당시 고구려와 왜에 불모로 잡혀가 있던 눌지왕의 두 동생인 복호와 미사흔을 무사히 귀환시키고, 자신은 왜에서 장렬히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한국사에 있어 박제상은 충신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박제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박제상설화에 나타나는 불모과건기사를 중심으로 4-5세기 한일관계사 연구에서 언급되는 수준이었고,¹⁾ 최근에는 박제상의 출자와 신분에 대한 연구가 다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전혀 다른 해석 과정을 통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

본 글은 이와 같은 박제상에 대한 기왕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

-
- 1) 村上四男, 「堤上傳을 둘러싼 新羅의 建國期에 있어서 對外關係」, 『韓國文化』 4-12, 自由社, 東京, 1982; 洪淳祜, 「金堤上說話에 대한 一考察--4,5世紀 韓日關係史 再照明을 위한 試論」 『한국전통문화연구』 2, 1986; 延敏洙, 「5世紀以前의 新羅의 對倭關係 - 『三國史記』 倭關係記事를 중심으로」, 『일본학』 8 9,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1990; 高寬敏, 「新羅의 堤上奈麻와 奈勿三王子」, 『三國史記의 原典的研究』 웅산각, 1996
- 2) 金龍善, 「朴堤上小考--護國文學의 한 패턴定立을 위한 試論」, 『全海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一潮閣, 1979 ; 朱甫墩, 「朴堤上和 5세기 초 新羅의 政治動向」, 『경북사학』 21, 1998; 沈在明, 「新羅 訥祗王代 朴堤上和 王弟歸還」,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宣石悅, 「朴堤上的 出自와 官等 奈麻」, 『경대사론』 10, 1998; 申鉉雄, 「朴堤上的 出自와 身分問題」, 『新羅文化』 27, 2006; 申鉉雄, 「朴堤上的 出自와 身分問題 (續)」, 『新羅文化』 28, 2007

라 눌지왕대 활약한 박제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박제상의 정체성확립과 관련해 敵良州干에서 개인적인 역량으로 중앙정치무대에 등장하는 과정과 삼국의 복잡한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외교가로서의 탁월한 면모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먼저 박제상의 관직과 그의 신분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삼국사기』 열전에 전하는 박제상의 관직인 삼량주간에 대한 성격을 통해 그가 삼량지역의 재지세력이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초기 신라사회의 지방세력이었던 박제상이 중앙정치무대로 등장하는 과정과 배경 그리고 그의 왕제송환의 외교활동을 통해 그의 정치적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의 부족에서 오는 제약으로 간혹 논리의 비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본 논문은 삼량주간 박제상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초기 신라사회의 지방지배의 실상과 박제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밝힐 수 있다면 다행으로 삼겠다.

II. 朴堤上의 官職과 身分

박제상 설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서로는 『三國史記』, 『三國遺事』가 있다. 두 사서에서 전하는 박제상 설화의 줄거리는 奈勿王訥祗王에 걸쳐 신라에서 고구려와 왜에 볼모가 파견되었는데, 눌지왕은 자신의 동생들인 이들의 귀환을 추진하였고, 그 임무를 박제상이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만 결국 박제상 자신은 왜에서 최후를 맞는다는 박제상의 충열담이 그 주된 내용이다. 연대나 사건 전개 등에서는 두 사서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대체적인 줄거리는 大同小異하다. 그러므로 두 사서의 내용을 서로 보완적으로 이용하면서 논의를 이끌어 나가하고자 한다.³⁾

3) 洪淳和, 「金堤上說話에 대한 一考察 - 4,5世紀韓日關係史 再照明을 위한 試論」

박제상이란 인물과 관련해 먼저 궁금한 것은 과연 그의 신분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역임한 직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리라 생각된다. 박제상이 역임한 직책에 대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1) 朴堤上(혹은 毛末이라고도 함)은 (중략) 계상의 벼슬은 敵良州干이었다.(『三國史記』 권45, 列傳)
- 2) 敵羅郡太守(金)堤上(『三國遺事』 1, 奇異 奈勿王 金堤上)

위와 같이 『삼국사기』는 박제상의 직책이 敵良州干이었다고 하였고, 『삼국유사』에는 敵羅郡太守로 되어 있다. ‘敵良’, ‘敵羅’라는 이 두 지명은 명칭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신라의 양주, 즉 지금의 경상남도 양산을 의미하는 것이다.⁴⁾ 그러나 州가 처음 설치된 것은 6세기 초인 지증왕대이므로 5세기초 당시에 양산지역이 州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군의 장관이 태수로 불리게 된 것은 문무왕대 이후이기 때문에 삼랑주, 삼나군태수라는 명칭은 모두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후대에追記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干이라는 명칭만이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가 맡고 있던 干이라는 직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즉 파사니사금 23년 8월조에 의하면 昔汁伐國이 悉直谷國과 지경을 다투어 신라왕에게 와서 재판을 청하는 내용 가운데 소국인 昔汁伐國의 國主가 陁鄒干이라고 되어 있어 주목된다.⁵⁾ 물론 이 기사의 연

『한국 전통문화연구』 제2집, 1986; 심재명, 「신라 눌지왕대 박제상과 왕제귀환」 『서강대석사학위논문』 1996, 98쪽

4) 村上四男, 「新羅의 敵良(良州)에 대하여」 『朝鮮學報』 48, 1968; 『朝鮮古代史研究』 1978

5) 昔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清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 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昔汁伐國 於是王命六部 會響首露王 五部皆以伊淦

대와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긴 하지만, 이 사료를 통해 삼한시기 한 소국의 지배자를 간이라 하였음을 추정 할 수 있게 한다. 대체로 소국의 장인 간의 권한으로는 병마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 즉 군사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⁶⁾ 이렇게 볼 때, 간이란 원래 족장을 의미하는 말로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지방세력가로서 이해하고 있다.⁷⁾

신라는 4세기대의 어느 시점에 경주 분지의 사로국이 중심이 되어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성립하였을 것이다.⁸⁾ 그러나 초기 신라 국가는 주변의 소국을 복속하는 과정에서 신라 전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영역적 지배를 관철하지는 못하였다. 대신 소국의 지배자에게 간이라는 관직을 하사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즉 간이란 일정한 영토를 관장하는 것으로 왕권이 불완전하던 시대적인 유물로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자연 중앙정부에 흡수되던 과도기적인 당시 신라국가형성의 과정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삼랑주간 박제상은 지금 양산지방에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지방세력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 삼랑지역을 통합하였을까? 그리고

爲主 唯漢祗部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祗部主保薺而歸 奴逃依 音汁伐主 陁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陁鄒不送 王怒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家自降 悉直 押督二國 王來降 (『三國史記』 卷1, 婆娑尼師今 23年 8月)

6) 『三國史記』 卷44, 列傳 居道

7) 김철준,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1975, 151쪽; 서의식, 「新羅 上古期 干의 編制와 分化」 『歷史教育』 53, 1993. 한편으로는 『三國史記』 열전에 朴堤上 혹은 毛末이라는 기사에 근거하여 제상은 모말이 띠고 있던 관직에서 유래하는 별칭으로서 제상의 原義를 읍락의 장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村上四男, 「堤上傳을 둘러싼 新羅의 建國期에 있어서 對外關係」 『韓國文化』 4-12, 33쪽, 1982;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卷, 1962, 81-82쪽)

8) 강종훈, 「신라상고기년의 재검토」 『한국사론』 26, 1991, 서울대 국사학과 ; 선석열,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기사문제와 신라국가의 성립』 1996, 혜안

통합이후 이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을까? 신라가 삼랑지역을 언제 통합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였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자료는 없다. 다만 『삼국사기』 신라본기 탈해 이사금 21년조의 기사내용을 통해 일찍이 신라가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산의 지리적 위치로 보면 낙동강의 동, 서안을 연결해 주는 전략적 요충지역이며 양산을 지나는 오늘날의 양산천을 따라 언양에 이르는 긴 골짜기는 낙동강과 경주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한다.⁹⁾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역에 해당하는 삼랑지역을 놓고 일찍부터 신라가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였음은 다음의 사료에서 엿볼 수 있다.

가을 8월에 阿滄 吉門이 伽耶兵과 더불어 黃山津口에서 싸워 일천여급을 얻었다. 吉門으로서 파진찬을 삼으니, 공로를 상함이였다. (『三國史記』 卷1, 脫解 尼師今 21年)

위의 기록에서 보이는 黃山津은 오늘날의 낙동강이 경남 김해와 양산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지역으로,¹⁰⁾ 일찍부터 신라가 이 지역에서 가야세력과 충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찬 길문이 가야병 천여급을 벤 공로로 파진찬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위의 황산진구 전투를 김해세력과의 교역권 쟁탈과 관련해, 김해세력이 쇠퇴하고 교역의 중심지가 경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¹¹⁾ 4세기대의 신라는 김해의 김관가야와 함께 영남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강자로 부각하였으나, 신라가 이 지역을 완전히 복속시키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광개토태왕비문에서 보이듯이 고구려의 남하가 낙동강하류까지 뻗

9) 朴敬源, 「양산군 역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 1991, 743쪽

10) 李丙燾譯註,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13쪽

11) 이현혜, 「4세기 가야지역의 교역체계의 변천」 『한국고대사연구』 1, 한국고대사연구회, 1988; 주보돈,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1998

던 사실로 보아 이 당시 신라도 고구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 행사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5세기대는 삼랑 지역에 대한 완전 복속단계는 아니더라도 신라의 세력권하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산에 대한 신라의 지배는 4세기 중엽 이후의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삼랑지역은 앞서서도 살피본 바와 같이 가야와 접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와는 바다로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로서는 대단히 전략상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삼랑지역은 이전부터 지녀왔던 소국적 기반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지방통치방식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45세기 삼랑주간이었던 박제상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으로 보기 보다는 재지세력으로 이곳의 최고 책임자로서 간이라는 직책을 수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의 중앙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단발적인 군사행동이나 위세품의 하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율과 통제를 병행하면서 신라로부터의 이탈을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¹²⁾ 박제상 사후 삼랑지역에 대한 단발적인 군사행동을 나타내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

춘 2월에 倭人이 敵良城을 침노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날새, 왕이 伐智와 德智를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중노에 숨어 기다리다가 요격하여 왜병을 크게 깨뜨리었다.(『三國史記』 권3, 자비마립간 6년)

이 기사는 왜인이 삼랑성을 공격하자, 자비왕이 직접 왕경의 군대를 이끌고 격파하였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면 왕경에서 파견한 중앙군이 주둔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왜인의 침입에 대해 자비왕이 직접 왕경의 군대를 이끌고 伐智와 德智로 하여금

12)李한상, 「4세기 전후 신라의 지방통제방식 - 분묘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7, 2000

왜병을 무찌르게 한 것은 삼랑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더욱이 5세기 당시 삼랑지역에 산재 하던 재지세력의 존재는 이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북정리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양산 북정리고분군에 속하는 부부총은 대체로 5세기 중, 후반으로, 금조총은 5세기말 6세기초로 추정되고 있다. 두 고분의 내부에는 경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을 비롯한 금제영락, 청동제초두, 금제조족, 금제이식, 금제팔찌, 마노 및 유리제팔찌, 곡옥 등 장신구와 장식대도가 다수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 신라의 지방 중 중요거점지역의 수장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즉 5세기 후반대 신라의 힘은 강성하였지만 신라 전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영역적 지배를 관철하지는 못하였다. 대신 지방지배의 중요한 거점이 되거나 접경지대에 위치한 집단은 그 기반을 해체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매개로 지방지배를 실시하였던 것이다.¹⁴⁾

신라가 북속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된 것은 사료나 금석문을 통해 5세기 후반부터였음을 알 수 있고,¹⁵⁾ 삼랑지역에 신라의 지방관이 파견된 것은 문무왕 5년 삼랑주가 설치되면서부터였던 것이다.¹⁶⁾ 이렇게 볼 때, 신라가 금관가야를 정벌하고 난 이래 문무왕대 지방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기 까지 양산지역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가 정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박제상이 지방세력가였음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음의 사료도 참고된다.

5년(205)춘 3월 癸卯朔 己酉에 신라의 왕은 汗禮斯伐毛麻利叱智富羅母智 등

13) 심봉근, 『양산 금조총·부부총』, 고적조사보고 제19책(동아대학교 박물관), 1991

14) 이한상, 앞글, 19쪽

15) 후보돈, 「마립간시대 신라의 지방통치」 『영남고고학』 19, 1996, 41-44쪽

16) 文武王 5年 麟德 2年 割上州下州地 置歙良州 神文王 7年築城周1260步 景德王改名良州 今梁州(『三國史記』 권34, 지리지 양주)

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이에 사자들은 전에 인질이 되어 와 있던 微叱許智伐 투를 통하여 속여서 “사자인 오례사벌모마리길한등을 나에게 고하기를 ”우리 왕은 내가 오랫동안 귀국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처자를 몰수하여 관노로 삼아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日本書紀』 9, 신공기 5년조)

이 기사는 왜에 볼모로 갔던 微叱許智(未斯欣)를 구출하기 위하여 毛麻利叱智 富羅母智 등이 파견된 사실을 전하는데, 汗禮斯伐이 인명이 아니라 지명이라는 주장이 있어 흥미롭다.¹⁷⁾ 즉 사벌이나 혹은 벌은 지명어미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례사벌이 인명이 아니라 지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례사벌은 毛麻利叱智와 富羅母智 등 2인의 출신지명이라는 주장이다. 오례사벌은 음운상 울산의 당시 지명인 屈阿火와 비슷하므로 박제상의 출신지는 바로 오늘날의 울산 부근이라고 한다. 사실 오례사벌을 울산으로 비정할 수 있을 지 어떨지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박제상을 지방민 출신자로 볼 만한 유려한 근거는 일단 확보한 셈이다.

그런데 『三國史記』 열전 박제상의 출자에 의하면 박제상은 박혁거세의 후손으로 파사니사금의 5세손이고 조부가 중앙의 진골신분층에 해당하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어¹⁸⁾ 그의 출자문제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¹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박제상이 삼랑지역의 지방세력가

17) 주보돈, 앞 글, 824쪽

18) 朴堤上(細注 或云 毛末) 始祖赫居世之後 婆娑尼師今五世孫 祖阿道葛文王 父勿品波珍淪(『三國史記』 권45, 列傳 朴堤上傳)

19) 박제상의 출자에 대해 기존에는 지방민으로 보는 견해(김용선)와 왕경인으로 보는 견해(선석열) 그리고 신라의 왕경출신이었지만 체지 유력가로 토착화하고 지방세력화하였다는 견해(주보돈)로 대별된다. 김용선은 『삼국사기』 초 기기록에 의문이 많은 점을 들어 박제상의 출자기록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박제상을 지방세력가로 보고 있다. 반면에 선석열은 신라기년에 대해서는 수정론의 입장을 가지고 왕경인으로 지방에 거주한 세력으로 보기도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십랑주간 인 동시에 경위 11위인 나마라는 관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면 이와 같은 출자기록은 후대의 전승과정에서 追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자기록에 대한 의문이 많은 점을 들어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박제상이 사후 제 5품인 대아찬으로 추증되고 그의 딸이 미사흔과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박제상이 진골신분에 해당하는 인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지방세력가에서 진골신분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기까지의 과정은 그가 중앙무대로 진출한 이후 그의 외교적 활약상과 사후 왕실과의 혼인관계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朴堤上의 活動과 位相의 變化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박제상은 삼랑지역의 재지세력가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에서 성장한 박제상이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하게 되는 배경 및 과정 그리고 그의 구체적인 외교 활약상을 통해 그의 정치적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통해 그의 정체성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삼랑지역의 재지세력이었던 박제상이 역사무대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세에 대해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 같다. 4-5세기 신라는 국내적으로 내물왕(356-401), 실성왕(402-416), 눌지왕(417-458)으로 이어지는 왕실내부의 오랜 불화와 정치적 알력관계하에 놓여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강대한 고구려의 간섭과 보호하에 놓여 있었다. 특히 신라가 백제, 가야, 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고구려의 군사적 도움을 받으면서 고구려 군사가 신라의 영토내에 주둔하기도 하였고, 신라의 왕자나 왕실친족이 고구려에 인질로 가기로 하였다. 내물왕 37년(392) 신라는 실성을 고구려에 인질로 파견하였고²⁰⁾, 내물왕을 이어 즉위한 실성왕은 원년(402) 왜국과의 好誼를 통하고 내물왕의 왕자인 미사흔을 왜국

20) 『三國史記』 卷3, 奈勿王 37年 正月條

에 인질로 보내고 있고²¹⁾, 실성왕 11년(412)에는 내물왕의 아들 복호를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어야 하는 형편이었다.²²⁾

복잡한 국내의 정세하에서 즉위한 눌지왕(417-457)은 왕실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고구려와 왜에 인질로 가 있던 왕제귀환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왕제 복호와 미사흔을 귀환시키는 임무에 발탁된 인물이 바로 삼량주간 박제상이었던 것이다. 박제상이 왕제귀환의 임무를 맡게되는 과정과 그 발탁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訥祗王이 즉위함에 이르러 왕은 말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이들을 맞아 오려고 생각하였는데, 水酒村干 伐寶靺과 一利村干 仇里내와 利伊村干 波老 등 3인이 현명한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불러 묻기를 “나의 아우 두 사람이 인질로 왜국과 고구려의 두 나라에 가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돌아오지 못하므로 형제의 옛 정을 생각하는 마음을 능히 금할수 없다. 원컨대 그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니 세 사람은 함께 대답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敵良州干 堤上이 剛勇하고 智謀가 있다 하오니 그들 부르면 전하의 근심을 풀수 있으리라 생각하옵니다”하였다. 이에 제상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여 위의 세 신하의 말을 하며 遠行을 청하였다. (『三國史記』 卷45, 列傳5, 朴堤上傳)

위의 기사는 『三國史記』 박제상전에 전하고 있는 왕제귀환의 추진과정이다. 눌지왕이 즉위하자 말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水酒村干 伐寶靺과 一利村干 仇里와 利伊村干 波老 등 3인을 맞아오게 하였는데, 이들을 발탁한 것은 왕제구출을 위한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3촌간의 존재는 각각 경북 예천·성주영주의 지방세력가로 추측하고 있다. 3인의 간들과 동격으로 열거되고 있는 삼량주간 박제상 역시 이들과 같은 성격을 지닌 존재라고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²³⁾

21) 『三國史記』 卷3, 實聖王 元年條

22) 『三國史記』 卷3, 實聖王 11年條

삼랑지방에 있던 박제상이 3인의 간들의 추천에 의해 왕경에 와 왕 앞에 사례하였고, 박제상이 왕제송환의 임무를 맡고 고구려로 가게 되면서 비로소 奈麻라는 제 11위 경위를 받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²⁴⁾

그렇다면 박제상은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왕제귀환의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일까? 水酒村干 伐寶靺과 一利村干 仇里와 利伊村干 波老 3인의 간이 공통적으로 왕제구출의 책임자로 삼랑주간 제상을 추천한 이유는 제상의 인물됨이 剛勇하고 지모가 뛰어난 점을 들고 있다. 여기서 謀나 智는 구체적으로 외교력 또는 협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상의 개인적 역량이 추천의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삼랑지역의 지방세력가로 있던 박제상이 개인적인 역량으로 중앙정치무대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발탁된 박제상은 눌지왕 이전부터 고구려와 왜 등 국제정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정보의 축적은 박제상이 고구려 그리고 왜와 직, 간접 접촉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광개토태왕비문에서 보이듯이 고구려의 남하가 낙동강하류인 가야지역까지 이르렀다는 사실로 보아 지리적으로 가야지역과 인접한 삼랑지역의 재지세력가였던 박제상으로는 고구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 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박제상은 고구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삼국사기』 박제상열전의 기록에 의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보면 고구려에 대해서는

23) “王召集群臣及國中豪俠 親賜御宴 進酒三行 衆樂初作 王垂涕而群臣曰 昔我聖考 誠心民事 故 使愛子東聘於倭 不見而崩 又朕即位以來 隣兵甚熾 戰爭不息 句麗獨有結親之言 朕信其言以其親弟聘於句麗 句麗亦留而不送 朕雖處富貴而未嘗一日 잠忘 而不哭 若得見二弟 共謝於先王之廟 卽能報恩於國人 誰能成其謀策 (下略)”(『三國遺事』 1, 기이 내물왕 김제상)에서 눌지왕은 군신과 國中豪俠이 모인 잔치에서 왕제귀환의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國中豪俠은 군신에 대응되는 세력으로 지방세력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4) 金龍善, 앞글, 37쪽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고구려는 큰 나라요, 왕 역시 어진 인군이므로 한마디 말로 깨닫게 할 수 있었다.”에서 처럼 고구려는 대국이고 장수왕 또한 어진 인군이므로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고구려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박제상은 장수왕에게 交隣國의 道理와 또 信義와 同族의 誼를 설명하여 인질인 왕제 卜好를 돌려 보내줄 것을 간청하였더니 장수왕이 쾌히 승낙하므로 왕제 복호를 귀환시키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²⁵⁾ 반면에 왜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敵國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삼국사기』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제상이 대답하되 “신이 비록 노둔한 재주이오나 이미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끝내 명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큰 나라요, 왕 역시 어진 인군이므로 신이 한마디 말로 깨닫게 할 수 있었지만, 왜인같은 것은 口舌로 달랠 수는 없으니 거짓 피를 써서 왕자를 돌아오게 하여야겠습니다. 신이 저곳에 가거든 (대왕께서는) 신에게 나라를 배반한 죄로 논정하여, 왜인들이 들어 알게 하소서”하고 이에 죽음을 맹세하고 처자도 보지 않고 栗浦로 가서 배를 띄워 倭로 향하였다. (『三國史記』 권45, 列傳 5, 朴堤上傳)

위의 구절은 박제상이 왜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왜국은 고구려와는 달리 구설로 달랠 수 없고 거짓 피를 써야만 되는 비우호적인 적국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왕제 미사흔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구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거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왜인에 대해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와는 달리 왜국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적국으로 인식하고 신라의 반역자로 가

25) “語王曰 臣聞交隣之道誠信而已 若交質子 則不及五霸 誠末世之事也 今寡君之愛弟在此 殆將十年 寡君以鴝鵒在原之意 永懷不已 若大王惠然歸之 則若九牛之落一毛 無所損也 而寡君之德大王也 不可量也 王其念之 王曰諾 許與同歸”(『三國史記』 권45, 박제상 열전); “王弟卜好 自高句麗與堤上奈麻還來”(『三國史記』 卷3, 訥祗麻立于 2年條)

장하고 입국하여 망명을 청하는 등 속임수 또는 계책을 써서 왕제 미사흔을 탈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박제상이 탁월한 외교적 수완을 가진 능력의 소유자로 이해되어 진다.²⁶⁾ 박제상이 왜에 대해 갖고 있던 지식은 특히 그가 토착하고 있던 삼량이라는 지리적 위치에서도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삼량은 『日本書紀』에 草羅(신공황후 섭정 5년), 叵羅(웅략기 9년), 沙鼻岐(천지 2년)라 하여 동일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왜인의 중요한 침입장소가 되었던 것이다.²⁷⁾ 즉 삼량지방이 왜에 의해 누차 침입을 받고 또한 침입에 대비해 축성과 진을 설치하는 등 신라발전기에 대왜접촉을 가장 많이 하던 곳으로 박제상이 이곳의 지방세력가였던 만큼 왜인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²⁸⁾

이와 같이 박제상은 왜인과의 수 많은 접촉에서 얻은 정통한 왜국관과 ‘剛勇而有謀’라는 그의 용기와 지략으로 왕제 미사흔을 왜로부터 탈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박제상 자신은 미사흔의 탈출이 발각되면서 왜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즉 왜왕은 그를 木島로 귀양보냈다가 얼마 아니하여 사람을 보내어 나무로 불을 질러 온 몸을 태운 연후에 이를 참형하였던 것이다.²⁹⁾ 여기에 나오는 왜는 광개토태왕비문에 보이는 왜와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으므로 기내의 대화정권으로 보기 보다는 한반도 진출에의 중요 교통로에 해당하는 吉備 또는 北九州 福岡一帯에 위치해 있던 세력으로 비정된다.³⁰⁾

요컨대 박제상은 탁월한 외교력과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구려와 왜에 인질로 가 있던 복호와 미사흔의 구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제상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왕제귀환에 성공

26) 선석열, 앞글, 62쪽

27)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卷, 1962, 85쪽

28) 연민수, 앞글, 118쪽

29) 『三國史記』 卷45, 朴堤上列傳

30) 연민수, 앞글, 127쪽; 이종향, 앞글, 147쪽

한 눌지왕으로서의 정국의 주도권은 물론 자신의 입지강화를 위해서 박제상의 활약상과 왜에서의 그의 죽음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눌지왕은 박제상의 죽음을 통치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박제상이 왜에서 죽고 난 뒤 신라에서는 그에 대한 설화가 형성되어 갔으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박제상의 활약상을 기본틀로 하여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덧붙여지면서 기록으로 정착되었을 것이다.³¹⁾ 여기서는 눌지왕대로 그 시기를 좁혀서 박제상의 죽음 뒤에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통해 박제상가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1)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大阿湊을 追贈하고 그 가족에게 후히 물품을 내리었다. 그리고 未斯欣은 堤上의 第二女를 娶하여 아내로 삼아 (恩功에) 보답하였다.(『三國史記』 卷45, 列傳 朴堤上)
- 2) 국내에 크게 대사면령을 내리고 그 부인을 國大夫人으로 책봉하고 그 여자로서 美海公의 夫人으로 삼았다.(『三國遺事』 1, 奇異1 내물왕 김제상)
- 3) 4년 춘2월 왕이 舒弗郡 未斯欣의 딸을 納하여 왕비를 삼았다.(『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3, 慈悲麻立干)
- 4) 照知麻立干이 왕위에 즉위하니 慈悲王의 長子이다. 어머니는 김씨 舒弗郡 未斯欣의 딸이요.(『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3, 照知麻立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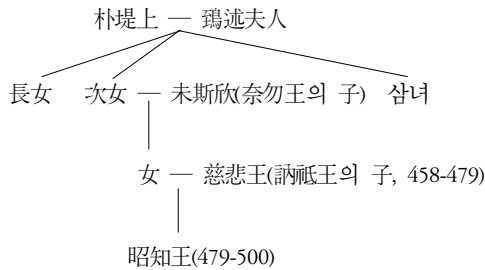
위의 기록은 박제상이 왜에서 죽고 난 뒤 박제상가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사료 1)은 미사흔을 구출하고 왜에서 최후를 맞이한 박제상에 대해 눌지왕은 大阿湊을 추증하였다는 것이다. 대아찬은 관등이 제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골신분에 해당한다. 이것은 박제상이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한 뒤의 관위가 제11위인 奈麻였음을 상기할 때, 대단히 과격적인 대우였음을 알 수 있다. 사료 2)에서는 박제상의 처를 국대부인으로 책봉하고 있다. 아울러 눌지왕은 미사

31) 沈在明, 앞 글, 110-111쪽

혼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6부민 또는 백관으로 하여금 교외까지 마중나가게 하고, 잔치를 크게 벌이기도 하였다.³²⁾

뿐만 아니라 사료 3)과 4)는 박제상가와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잘 보여 주고 있어 주목된다. 박제상의 딸과 내물왕의 아들인 미사흔이 혼인하고 있고, 박제상의 딸과 미사흔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자비왕과 혼인하였고, 자비왕과 박제상의 외손녀 사이에서 낳은 왕자가 즉위하여 소지왕이 되었다. 즉 내물왕계 후기의 왕실 즉 미사흔과 자비왕 그리고 소지왕은 박씨 집단과 관련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박제상을 주축으로 하는 박씨집단이 중앙의 권력구조상에서 왕실 다음가는 세력으로 부각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박제상가와 왕실과의 혼인관계>



이와 같이 박제상의 사후 내물왕계 후기의 김씨왕족은 박제상에 대한 報恩이라는 명분하에 그의 활약상을 대단히 부각시키고 있다. 제11위나마인 박제상이 제5위인 대야찬에 추증됨과 동시에 그 자손이 김씨왕족과 혼인하였고 또한 그 자손이 국왕과 혼인하여 그에게 낳은 자식이

32) 初末斯欣之來也 命六部遠迎之 及見握手相泣 會兄弟置酒極娛 王自作歌舞 以宣其意 今 鄉樂 憂息曲 是也(『三國史記』 卷45, 열전 박제상); 王驚喜 命百官迎於屈歇驛 王與親弟寶海 迎於南郊 入闕設宴(『三國遺事』 卷1, 기이 내물왕 김제상)

왕위를 계승하는 명실공히 왕비족 세력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신라가 국가적 성장을 통해서 골품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왕실과의 혼인 관계로 인한 박제상가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 갔을 것이고, 골품제의 폐쇄성과 엄격성 속에서 박씨집단은 진골신분층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당시는 아직 성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김씨계 왕인 진흥왕 6년(545) 『국사』 편찬시에 처음으로 중국식 성씨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왕은 김씨로 하고, 왕비의 성은 박씨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국사』 편찬시에 왕실계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제상의 경우 왕비쪽에 해당하였으므로 이때 처음으로 박씨 성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³³⁾ 그리고 왕실혈통상 계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왕비족인 박제상가의 경우 박씨왕실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후손으로 나아가 박씨왕실의 방계출신인 파사니사금(80-112)에서 분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전승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최근 박제상의 출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두가지 해석이 병존하고 있다. 박제상의 출자를 왕경인으로 주장하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삼국사기』에 전하는 그의 세계를 중시하는 반면, 박제상을 지방 출신자로 보는 견해는 그와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 열전에 전하는 박제상의 세계에 대한 기록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박제상이 파사니사금의 5세손이라는 기록과 나아가 그가 박혁거세의 후손이

33) 朴堤上의 姓에 대하여 『三國史記』에서는 朴氏로 『三國遺事』에서는 金氏로 되어 있는데, 학계에서는 박씨로 보고 있다. 『삼국사기』에 박씨출자에 대한 전승이 구체적으로 전해내려오기 때문이다. 아울러 두 성이 존재하는 것을 박제상설화가 적어도 두 개의 所傳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三品彰英), 박제상의 父系와 母系에 따라 박씨 또는 김씨로 칭했다는 주장도 있다.(金毅圭, 「新羅 母系制 社會說에 대한 檢討--新羅親族研究(其一)」 『한국사연구』 23, 1979, 53쪽) 그러나 당시 성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근거없이 박씨를 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박제상의 성씨는 박씨로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통설이 되고 있다.(金哲垓, 「新羅時代의 親族集團」 『韓國史研究』 1, 1968;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 출판부, 1990)

라는 기록도 또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³⁴⁾

그러나 박제상의 직책과 위상의 변화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볼 때,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박제상가의 세계가 어느 시점에 조작하여 부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삼국사기』 열전 박제상전에 나타나는 조상전승은 6세기 이래 왕실혈통상 계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씨왕실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후손으로 나아가 박씨왕실의 방계출신인 파사니사금(80-112)에서 분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후대에 전승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³⁵⁾

IV. 맺음말

이상에서 신라 눌지왕대에 활약한 박제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에 의하면 삼량주간이라는 그의 직책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 양산 지방에 세력근거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라고 생각되었다. 다시 말해 박제상은 중앙귀족이 아닌 지방세력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재지세력가였던 박제상은 왕제귀환이라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왕경인 경주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경위인 나마를 받는 등 중앙귀족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박제상이 복호와 미사흔 등 왕제를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고구려와 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뛰어난 협상력 등 개인적 역량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눌지왕은 정국의 주도권은 물론 자신의 입지강화를 위해서 박제상의 활약상과 왜에서의 그의 죽음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눌지왕은 박제상의 죽음을 통치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눌지왕은 박제상을 대아찬에 추증하고, 그의 부인은 국대부인에 봉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대

34) 김용선, 앞 글, 35쪽

35) 선석열, 앞 글, 47쪽

아찬은 제5품에 해당하는 신분으로 진골신분층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내물왕계 후기 김씨왕실과의 거둬진 혼인관계를 통해 박씨 집단은 왕비족으로서의 진골신분층임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라 눌지왕대 활약했던 박제상에 대한 몇가지 검토를 통하여 초기 신라사에 있어 삼랑지방이 차지하는 전략적인 위치와 함께 삼랑지역의 지방세력가가 왕경의 진골신분으로까지 그 위상이 격상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신라가 중앙집권적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는 데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논문접수일 : 08.12.03 / 심사개시일 : 08.12.06 / 게재확정일 : 08.12.20

<참고 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金龍善, 「朴堤上小考--護國文學의 한 패턴定立을 위한 試論」, 『全海宗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一潮閣, 1979

李鍾恒, 「未斯欣이 人質로 간 倭國의 位置에 대하여」, 『韓國學 論叢』 제4집, 1981

村上四男, 「堤上傳을 둘러싼 新羅의 建國期에 있어서 對外關係」, 『한국문화』 4-12, 자유사, 동경, 1982

洪淳昶, 「金堤上說話에 대한 一고찰--4 5세기 한일관계사 재조명을 위한 시론」 『한국전통문화연구』 2, 1986

이한상, 「4세기 전후 신라의 지방통치방식--분묘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7, 2000

延敏洙, 「5세기 이전의 신라의 대외관계--『삼국사기』 왜관계기사를 중심으로」, 『일본학』 8-9,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1990

高寬敏, 「新羅의 堤上奈麻와 奈勿三王子」, 『三國史記의原典의研究』 웅산각, 1996

朱甫噉, 「朴堤上和 5세기 초 신라의 정치동향」, 『경북사학』 21, 1998

- 沈在明, 「新羅 訥祗王代 朴堤上和 王弟歸還」,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宣石悅, 「朴堤上の 出自와 官等 奈麻」, 『경대사론』 10, 1998
- 申鉉雄, 「朴堤上の 出自와 身分問題」, 『신라문화』 27, 2006
- 申鉉雄, 「朴堤上の 出自와 身分問題 (續)」, 『신라문화』 28, 2007

Abstract

Park je sang' political position in the Shila nulgi king period / Cho, lee ok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focus of his political position change to build up his the real form about Park je sang(朴堤上) who had taken an active part within Shila nulgi king(訥祗王) period on base of previous park je sang' study results. that is, this study took attention about excellent capability by diplomat who had shown his diplomatic ability in complicated and international fields of three countries, and about process of entrance on central political fields by private capability in sap lang(歆良) district in relation with building up the real form of park je sang.

As result, by means of few investigations about park je sang who had taken an active part, we looked into process how local power man in sap lang(歆良) district had built up his position to jin-gol(眞骨) status with strategic location of sap lang(歆良) district on shila history within Shila nulgi king period. I think that we found valuable means from figures of a district society in process how Shila had grown with a country of centralizing power.

Key words: Nulgi king(訥祗王), Park je sang (박제상), Sap lang(歆良), Jin-gol(眞骨)